

유대교 탈무드 제라임(Zeraim)의 기독교교육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옥장흠(한신대학교/교수)

okch1@hanmail.net

한글 초록

21세기에 들어와 한국교회는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으며, 교회 성장과 선교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유대교 경전 탈무드의 제라임(Zeraim, 농사)을 한국교회의 위기와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탈무드의 출현 배경, 탈무드 제라임의 주요내용, 탈무드 제라임의 기독교교육에 적용방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유대교 탈무드 제라임을 통해서 한국교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용 가능성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축복받는 삶을 위한 기독교교육이다. 둘째, 사회정의·생명·창조보전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이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위한 기독교교육이다. 넷째, 율법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독교교육이다. 다섯째, 통전적 영성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이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토라)과 탈무드를 중심으로 통전적 영성을 회복한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에서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제 한국교회는 그동안 잘못했던 실수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사회적인 비판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주제어 》

유대교, 토라, 탈무드, 제라임, 축복, 통전적 영성

I. 들어가는 말

21세기에 들어서서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며, 흔들리고 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처럼 취급을 받고 있으며, 방역의 첫 번째 대상이 되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기독교계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동성애 문제로 기독교 교계가 양분되어 대립하는 중에도, 여전히 대형교회의 자녀 세습, 목회자의 성희롱, 성폭력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내재(內在)되어 있다. 이렇게 사회적 이슈에 대처하는 기독교회의 혼란한 모습이나 지도자들의 비윤리적 행태는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과 혐오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선교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교회는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거듭남으로 사회적인 비난을 피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자크 엘룰(Jacques Ellul, 1912~1994)은 “기독교의 본질은 기독교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엎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기독교를 뒤집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어떤 신성함도 존재할 수 없는 운동인데, 교회는 스스로 규범과 의식, 금기사항을 만들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상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교회는 예수와 전혀 무관한 기독교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2012, 17-43)고 지적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흐름을 포스트모던적 현상, 곧 전통과 권위의 해체, 극단적 자기중심주의, 전통적 공동체 질서의 해체와 개인의 파편화, 대안적 삶의 새로운 모색 등 포스트모더니즘 흐름에서 오늘의 현상적 의미를 파악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포스트모던적 현상의 도전에 직면하여 기독교회와 기독교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전통'과 '변화'를 조화롭게 적용해 나가는 유대교 탈무드 제라임 텍스트와 유대인들의 영성생활에서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기술과학과 자본이 결합되어 인간을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세속사회에서 '전통'과 '변화'를 조화롭게 이어 나가려는 기독교교육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에서 인간성 회복, 자연환경 회복에 주목해야 한다. 성서에 기초한 프락시스(parxis)를 중시하는 기독교교육(손원영, 2012, 26)이 나아가 할 방향은 “출애굽의 야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변혁 운동에 참여할 성숙한 신앙인을 양성하여, 사회변혁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윤응진, 2000, 26).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교육은 교회의 권력과 체제 유지 기능보다는 교회와 사회를 아울러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을 유대교 탈무드에서 찾하고자 하였다.

유대인들은 2천년 동안 전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지켜왔으며, 현재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적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앙전통을 들여다보면, 유대교 경전인 미쉬나와 탈무드가 있다. 그들은 이러한 경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자자손손 계속적으로 가르쳤던 것이다. 이제 기독교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가르치며, 배우고, 지켜왔던 신앙전통 탈무드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탈무드 6권의 책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제라임(Zeraim) 텍스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유대교 탈무드의 개관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는 토라(구전토라, 미쉬나)에 주석(해설, 게마라)을 붙인 것이다. 이러한 탈무드가 나오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으로, 탈무드의 출현배경과 편집과정, 구성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유대교 탈무드의 출현배경

유대교 탈무드의 출현 배경을 이스라엘의 멸망, 토라연구와 소페림의 등장, 유대교의 태동과 미쉬나 편집, 탈무드의 편집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 정치·종교·경제·국제정세의 변화가 작용하여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최창모, 2007, 82-86). 이러한 결과 이스라엘은 남북 분단으로 통일왕국 변영의 시대는 끝이 나고 말았다. 영토 대부분은 주변 국가에 빼앗겼으며,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고, 사상적 분열까지 초래되었다. 또한 국토는 북이스라엘(사마리아)과 남유다로 양분되어 영속화되었다.

그러나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정치, 군사,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 교류가 활발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지속시킬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예언자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미가 등은 남북을 오가며 예언활동을 하였다(이사야 11:11-16; 호세아 1:10-11, 2:1-2; 예레미야 3:18, 50:4; 에스겔 37:15-18; 스가랴 10:6-12).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시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사상을 싹틔워 나갔다. 그러나 B.C. 721년 북이스라엘이 앗시리아에 멸망 당하면서 앗시리아 영토에 편입되면서 통일왕국의 꿈은 사라지고 말았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

서 앗시리아에 영토가 편입되자 북이스라엘의 많은 피난민들이 남유다로 몰려와 예루살렘의 인구가 급증하였다. 앗시리아는 나머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을 북이스라엘에 이주시켰다(최창모, 2007, 106).

한편, 남유다는 바벨로니아 느브갓네살의 침공으로 B.C. 587년 예루살렘 함락과 시드기야 왕의 비극적 죽음으로 몰락하게 되었다(Anderson, 1970, 154-155). 바벨론 군대는 남유다 백성들을 유린하였고, 건물을 모두 불태우고, 성벽을 헐어버렸다(열왕기하 25:1-12), 짓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 주는 이가 없이(예레미야애가 4:4) 되었으며, 자애로운 어머니가 이제 자신의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예레미야애가 4:10),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졌다(예레미야애가 2:21). 도주하다 사로잡힌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처형당하였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로니아로 끌려갔다(열왕기하 25:7)(최창모, 2007, 106).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앗시리아에 패망하여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동화되어 버리는 위기를 당하였고, 남유다는 B.C. 587년 바벨로니아의 침공으로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다(Johnson, 2005, 166-167).

이제 이스라엘의 패망, 곧 남유다의 패망으로 솔로몬왕 때 건축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제1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다(열왕기하 25:8-17, 예레미야 52:12-33). 또한,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금지되었다. 이러한 비참하고 암담한 상황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선민,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옥장흙, 2011, 102).

2) 토라 연구와 소페림의 등장

이스라엘의 멸망은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새로운 '계약

공동체'를 준비시키기 위한 시련이라고 믿었다(예레미야 31:31). 그들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려는 희망을 일깨웠다(에스겔 48장). 또한 성전 예배가 불가능해 지면서 성전 없이도 가능한 새로운 예배 형식과 공동체를 창조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성전보다 율법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갔다. 여기서 제사장의 지위에 버금가는 율법 교사의 역할과 지위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공동체의 재건은 율법을 통해 이룩될 수 있음이 강조되었다. 성문화된 토라가 바로 이 시기에 집대성된 것이다. 낯선 세계에서 생존의 한 방식으로써 자신들의 오래된 기억과 전통을 재구성함으로써 자기 동일성을 구체화하려 했던 것이다. 이제 토라는 단순히 공동체와 그 일원을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창출하고 결속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마련해 주는 주제가 된 것이다(최창모, 2007, 112).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정체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토라'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종교지도자들은 회당(Beth Hakeneseth)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집회를 하였으며, 또한 토라를 연구하고 가르쳤다. 또한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장소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토라를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소페림'(Soferim)이라고 불렀다. 구약성경에는 가장 뛰어난 소페림으로 에스라(Ezra)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모세 율법에 뛰어난 학사'로서 가장 뛰어난 소페르(Sofer)라고 묘사하고 있다(에스라 7:6)(Musaph-Andriessse, 1981, 22).

3) 유대교의 태동과 미쉬나 편집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구분되는 종교의 구성원임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종교를 태동시켰다. 이 종교가 바로 유대교이다. 이러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정연호, 2010, 17).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달

리 신앙은 물론 생활양식도 구별되어야 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토라(율법)에 나타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생활에서 토라(율법)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느헤미아 8:8). 에스라는 크네세트 하그돌라(최고회의: Keneseth Hagedolah)를 창설하여 보존되어 온 교리들을 연구하였으며,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개발하여, 미쉬나를 편집한 랍비들에게 넘겨주었다. 따라서 최고회의에 의해 후대 학자들이 이어갈 연구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들이 탈무드를 편집하였다(Cohen, 1994, 11-16).

미쉬나는 구전 율법을 집대성한 책이다. 미쉬나의 의미는 ‘반복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shana’에서 나왔다(Neusner, 1973, 26). 그러므로 미쉬나는 반복하여 외운다는 의미이다. 미쉬나를 편집한 학자들은 타나임 학자들이다. 타나임 학자들은 서기 20-200년경의 학자들로 구전 율법에 자신들의 해석을 추가해서 미쉬나를 완성시켰다(정영호, 2010, 153). 미쉬나의 구성은 세데르(seder)로 불리는 6개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것은 다시 마세케트(masseket, 또는 아람어로 messekta)로 세분된다. 각각의 마세케트는 페렉(perek)으로 불리는 장들로 나누어진다. 그것은 총 525장이고 각각의 장은 차례대로 미쉬나로 불리는 단락으로 구성된다. 모든 책들의 구분과 배열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책의 구조와 편집은 하나의 새로운 학문 분야였다(Neusner, 1973, 26). 미쉬나의 6개 세더는 제라임(씨앗), 모에드(절기), 나뉘(여성), 네찌킨(상해), 코다쉬(거룩), 토호롯트(정결) 등이다. 실제로 미쉬나 즉 구전 토라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구전 전승되었다(최중화, 2019, 131).

모세 → 여호수아 → 장로들 → 예언자들 → 위대한 공의회 사람들
 → 시몬 하짜딕 → 안티고누스 쏘코 → 쩌레다의 요세 벤 요엘 → 예루

살렘의 요세 벤 요한 → 여호 수아 벤 페라리아 → 니타이 → 예후다
벤탐타바이 → 시므온 벤 사타흐 → 세마이야와 아브탈리온 → 힐렐과 삼
마이 → 라반 가말리엘 → 요한 벤-자카이 → 라반 가말리엘 2세 →
라반 시몬 벤-가말리엘 → 랍비 유다 하-나시

4) 탈무드의 편집

탈무드의 편집은 유다 하-나시부터 바벨론 탈무드가 완성되기까지 활동
했던 학자들을 아모라임(Amoraim)이라고 부른다. 아모라임은 아람어로 ‘말
하다’, ‘해석하다’라는 아마르(Amar)에서 유래하였으며, ‘말하는 사람’, ‘해석
하는 사람’이란 뜻이다(Strack, 1978, 5-6). 아모라임은 타나임 학자들과는
달리 팔레스타인(이스라엘)과 바벨론에서 활동하였으며, 바벨론에서는 바벨
론 탈무드가 편집되었으며, 팔레스타인(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팔레스타
인) 탈무드가 편집되었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사상과 신앙의 원천이며 생활
의 규범이 되었다. 또한 아모라임 학자들은 바벨론에서는 7세대, 팔레스타
인에서는 5세대의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Strack, 1978, 119-133; Unterman,
1971, 292-294). 탈무드는 히브리어 동사 ‘Lamad’(배우다)에서 파생한 ‘가
르침, 공부’를 의미한다. 탈무드는 미쉬나와 게마라로 구성된다. 게마라라는
이름은 나중에 지어졌다. 그래서 게마라는 주석과 추가의 기능을 의미한다.
탈무드의 언어는 다양하다. 바벨론 탈무드에서는 히브리어와 동아람어가 사
용되었다. 그러나 예루살렘(팔레스타인) 탈무드는 히브리어와 서아람어로 쓰
였다(Encyclopedia Judaica, 1972, 35). 탈무드는 미쉬나를 본문으로 삼아
3세기에 걸쳐서 이룩된 토론의 모든 기록들과 보고서들, 즉 미쉬나에 그 해
석(주석)을 덧붙인 것이라 할 수 있다.

2. 유대교의 탈무드

유대교의 법, 윤리, 풍습, 역사 등에 대하여 랍비들이 토론한 내용들을

기록한 방대한 저작물이다. 탈무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서기 200년경에 기록된 미쉬나와 500년경에 기록된 게마라이다. 미쉬나는 이미 독립된 책으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쉬나는 따로 구분해 놓고, 게마라를 탈무드로 보기도 한다(최인식, 2008, 108-109). 탈무드 텍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최중화, 2019, 35).

<표 1> 탈무드 텍스트의 구성내용

제1권	제라임 (11 마섹트)	제라임(Zeraim)은 '씨앗'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세데르가 농업 관련 법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 그 외에도 유대교에서 드리는 기도와 축복문, 십일조 등과 관련된 법규도 다루고 있다.
제2권	모에드 (12 마섹트)	모에드(Moed)란 이름은 정한 '절기'를 가르키는데 안식일에 실행할 수 없는 노동은 무엇인지, 유월절과 속죄절, 장막절, 새해 첫날 등 유대 명절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관련한 법규를 다루고 있다.
제3권	나쉬 (7 마섹트)	나쉬(Nashim)은 '여인들'이란 뜻이다. 이 부분은 가족생활과 관련된 법규들을 다루는데, 약혼과 결혼과 이혼관련법, 죽은 형의 형수와 관련된 수혼법 등을 설명한다. 그 외에도 법적 효력이 있는 맹세 관련법과 금욕적 생활을 하는 나실인 관련 법규를 다루고 있다.
제4권	네찌킨 (10 마섹트)	네찌킨(Nizikin)이란 '손상, 피해'이라는 뜻이다. 민법과 형법에 관련된 다양한 법규를 다루고, 또 산헤드린(Sanhedrin) 의회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요령과 외국인과 거래하는 법이 주제가 된다. 그리고 유대 현인들이 남긴 지혜의 가르침들과, 공동으로 드리는 속죄제 관련법규들을 다루고 있다.
제5권	코다쉬 (11 마섹트)	코다쉬(Qodashim)은 '거룩한 것들'을 다루는 부분이므로, 토라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와 제물, 성전에 관련된 다양한 법규들, 그리고 음식법 관련 법규를 다루고 있다.
제6권	토호롯 (12 마섹트)	토호롯(Tohorot)은 '정결'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정결하거나 부정한 성격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하는 그릇의 정결과 부정, 사체에 접촉했을 때의 규정으로 피부병이 났을 때, 부정을 씻는 정결례, 여성의 월경, 유출병, 손이나 열매에 관련된 정결과 부정의 규칙을 다루고 있다.

Ⅲ. 유대교 탈무드 제라임(Zeraim)의 주요내용

탈무드 제라임의 텍스트는 <표 2>와 같이 바벨론 탈무드는 베라코트(축복)외에는 게마라(Gemara)가 없다. 팔레스타인 탈무드는 11개 모두 게마라가 있고,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편집하였다. 또한 바벨론 탈무드는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편집하였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영적인 쇠락으로 바벨론 탈무드의 권위가 전면에 부각되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바벨론 탈무드를 중심으로 탈무드 제라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제라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첫째 부분은 게마라가 존재하는 베라코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둘째는 게마라가 존재하지 않는 농사에 해당하는 10개의 미쉬나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표 2> 탈무드 제라임 텍스트의 구성(Musaph-Andriess, 1981, 42-43)

Seder	Masechet	Chapter	Gemara	
			Palestinian Talmud	Babylonian Talmud
Zeraim	베라코트(Berakhot)	9	○	○
	페아(Peah)	8	○	
	데미(Demai)	7	○	
	킬아임(Kilaim)	9	○	
	셰비이트(Shebiith)	10	○	
	테루모트(Terumoth)	11	○	
	마아세로트(Maaseroth)	5	○	
	마아세르 셰니(Maaser Sheni)	5	○	
	할라(Hallah)	4	○	
	오를라(Orlah)	3	○	
비쿠림(Bikkurim)	3	○		

1. 축복: 베라코트(Berakhot: 신조, 기도문)

베라코트는 미쉬나(구전토라)가 9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마라는 2-64페이지 앞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표 3>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적 예배의식으로 쉘마 신조 암송,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기도, 축복을 구하는 기도, 공동체의 식사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Neusner, 2006, 1-2).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쉘마 신조의 선언(쉘마: 신명기 6:4-9)으로, 아침과 저녁에 쉘마 암송하기, 쉘마를 암송하는 태도와 방법, 쉘마와 의무적인 기도문을 암송하는 의무로부터 면제된 것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둘째, 기도문의 암송에 대한 설명으로 아침과 저녁 기도문 암송, 기도문 암송을 위한 올바른 태도, 기도문의 암송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하는 기도문들의 내용, 기도문의 암송에 있어서 봉헌 기도문들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창조의 유익을 즐기는 것으로 암송되는 축복들에 대해 암송하는 요구(명령)들, 다양한 음식물들에 대한 적절한 축복들에 대한 설명이다. 넷째, 공동체의 식사와 그들의 규약으로, 주로 식사에 대한 공동체적 특성을 형성하는 것, 은총의 암송을 위한 정족수 선언하기(특별한 문제들), 삼마이와 힐렐에 의해서 논의되는 식탁에서 축복의 규약에 관한 특별한 문제들(규범적 율법)의 설명이다. 다섯째,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축복들로 선을 위한 것과 악을 위한 축복들이나 기적들 혹은 다른 예외적인 사건들의 기념에 있어서 축복들, 주어진 장소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되는 기도문들과 규약들에 대한 설명이다.

2. 농사

페아(Peah)에서 마지막 11번째 비꾸림까지 10개의 미쉬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라임 텍스트의 첫 번째 베라코트 미쉬나 다음으로 제시되는 나머지 10개 미쉬나는

본격적으로 농사와 관련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1) 사회적 약자: 페아(Peah, 모통이)

페아(Peah, 모통이)는 농작물을 수확할 때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기 위한 규례들을 설명한다. 페아는 미쉬나(구전토라)가 8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가난한 사람, 거류민, 나그네, 고부 고아 등을 위해 구석진 곳(모통이)의 곡식을 추수할 때 거두지 않고 남겨두는 행위를 말한다.

구약성서에서는 레위기 19:9-10, 23:22, 신명기 24:19-22 등에 규정하고 있다. 레위기 19장 9절에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들이 다음, 떨어진 이삭 또한 주워서도 안된다.”고 하였다. 페아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추수할 때 의도적으로 남겨두는 것, 둘째,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들이나 소산물이 있다면 줍지 말고 그냥 두어야 하는 것, 셋째, 추수 후 잊어버리고 가져가지 않는 것은 다시 가져오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권성달, 2019, 104).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줄 농산물은 첫째, 밭의 구석에서 자라난 농작물, 둘째, 수확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농작물, 셋째, 실수로 밭에 두고 온 곡식단, 넷째, 포도나무에 남은 열매, 다섯째, 처음 수확할 때 아직 익지 않은 포도 열매 등이다(권성달, 2019, 104).

2) 축복에 대한 감사 제물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들을 드려야 한다. 그 제물은 먼저 십일조가 있다. 십일조와 관련된 미쉬나(율법)는 제사장에게 십일조를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는 규정으로 데마이(Demai), 제사장에게 드리는 계제물에 대한 규정으로 테루모트(Terumoth), 레위인에게 바치는 십일조에 대한 율법 마아세로트(Maaseroth), 땅의 십일조와 4년

에 생산한 산물의 십일조 마아세로 쉬니(Maaser Sheni)이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빵으로 드리는 제사로 할라(Hallah), 심은 후 3년간 수확한 과일에 대한 감사예물 오를라(Orlah),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비쿠림(Bikkurim)이 있다.

첫째, 데마이는 의심이 되는 농산물, 즉 제사장에게 십일조를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옥수수 및 기타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관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십일조의 의무로부터 면제된 농산물에 대해 다룬다. 십일조에서 면제된 농산물은 일반적인 음식으로 취급되지 않은 생산물(야생무화과, 야생대추, 산사나무, 베리, 흰무화과, 들무화과, 설익은 대추야자 등), 이스라엘의 경계 밖에서 생산된 농산물, 상업적 목적으로 공급된 농산물이다(권성달, 2019, 104).

둘째, 테루모트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십일조에 대한 규례로 레위기 22:10-14, 민수기 18:8-20, 신명기 18:4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레위기 22:10을 보면, “제사장이 아닌 여느 사람은, 아무도 그 거룩한 제사음식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나그네나 그가 쓰는 품꾼도, 그 거룩한 제사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으며, 민수기 18:8을 보면,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제물로 받은 것,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는 것을 모두 너에게 준다. 나는 그것들을, 너와 너의 아들들의 몫으로, 언제나 지켜야 할 규례로 준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으며, 신명기 18:4을 보면,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셋째, 마아세로트는 레위인이 받을 몫으로 십일조(첫째 십일조)에 대한 규례이다. 민수기 18:21-24에서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 일을 거드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 죄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회막 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죄값은 레위 사람이 진다. 이것은 오고오

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레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 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

넷째, 마아세르 쉘니는 제2십일조로 땅의 십일조와 생산한 농산물의 십일조에 대한 규례로, 신명기 14:22-26에 설명하고 있다. 신명기 14:22-23을 보면, “너희는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 너희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 앞에서 먹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가르쳐 준다.

다섯째, 할라는 떡반죽(가루 반죽)이라는 의미로 빵(가루 반죽)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이다. 민수기 15:17-21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는 주께 헌납물을 드려야 한다.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헌납물로 드려라. 그것을 타작 마당에서 타작한 헌납물로 드려라.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에서 떼어 낸 헌납물을 너희 대대로 주께 드려라.”라고 가르쳐 준다.

여섯째, 오흘라는 할레받지 못한 사람으로, 과일나무를 심고 난 후 3년 이내의 열매를 식음 금지한다는 규례이다. 레위기 19:23-25에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세 해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아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해의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 그 달린 모든 과일을 주를 찬양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과일을 맺기 시작하여 다섯째 해가 되는 때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 이렇

게 하기만 하면, 너희는 더욱 많은 과일을 거두어들이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준다.

일곱째, 비쿠림은 첫 열매를 제사장과 성전에 드려야 하는 규례로 출애굽기 23:19, 신명기 26:1-11에 설명하고 있다. 출애굽기 23:19에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으며, 신명기 26:10-11을 보면, “주님,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려라.”라고 가르쳐 준다.

3) 혼종금지: 킬아임(Kilaim)

킬아임(Kilaim)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해서는 안되는 규정이다. 킬아임은 씨앗을 섞지 말고, 동물들의 혼성교배를 금지시키는 명령으로 레위기 19:19, 신명기 22:9-11에 설명하고 있다. 레위기 19:19에는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신명기 22:9-11에는 “너희는 포도나무 사이 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한다. 너희는 소와 나귀에게 한 멩을 매워 밭을 갈지 말아라. 너희는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겂옷 자락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

4) 안식년: 쉐비이트(Shebiith)

쉐비이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안식년의 규정이다. 안식년에 관한 규정은 출애굽기 23:11, 레위기 25:1-8, 신명기 15:1-11에 설명하고 있다. 출애굽기 23:11에는 “일곱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 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레위기 25:2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 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될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신명기 15:1에는 “매 칠 년 끝에 그 해의 끝에 빚을 면제하여 주어라.”라고 안식년을 잘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

IV. 탈무드 제라임(Zeraim)의 기독교교육의 적용방안

앞에서 설명한 유대교 탈무드의 개관과 제라임(Zeraim)의 주요 내용들을 토대로 21세기 급격히 변화된 삶의 환경과 기술사회의 무신론적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기독교교육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자는 탈무드의 형성과 제라임의 주요 내용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섯 가지 내용, 곧 축복받는 삶을 위한 기독교교육, 사회정의·생명·창조보전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위한 기독교교육, 율법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독교교육, 통전적 영성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 등으로 재해석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1. 축복받는 삶을 위한 기독교교육

19세기 철학자 니체(F. Nietzsche, 1844-1900)가 과감하게 “신은 죽었다!”(1985, 265)고 주장한 이래로 인류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역사의 주

체자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인간은 18세기 유럽에서 산업혁명을 이룩한 이후 지속적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왔다. 20세기에 이르러 인간이 이룩한 기술 과학의 발전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지상 낙원(Utopia), 곧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이 오늘 현실에서 인간의 필요들을 채워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인간의 기술로 이루어질 복된 테크노피아(Technopia)의 실현인 셈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등장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 인간의 혁신적 기술은 소수의 자본가와 대중들에게 엄청난 부와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 시대의 혁신적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익과 혜택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김정준, 2019, 130-134). 인간 세계에서 공동체성은 점점 사라지고, 개인은 파편화되어 간다. 오늘날 인간이 추구하는 기술과학 유토피아는 축복인가, 혹은 저주인가?

유대교 탈무드 제라임 텍스트에서 처음에 소개되는 베라코트(Berakoh: 신조, 기도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유대인들이 저녁과 아침에 드리는 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쉘마 신앙고백,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 그리고 공동체적 삶의 회복을 간구하는 축복된 삶의 약속을 간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쉘마 신앙고백이다. 쉘마는 신명기 6:4-9, 11:13-21에 기록되어 있다. 쉘마 단락의 첫 구절은 ‘들으라 이스라엘아!’(쉘마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신조와 같은 선언 형식이다. 쉘마 신앙고백은 바로 유대인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이며 하나님의 주재권과 그분의 축복을 받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탈무드 제라임의 첫 번째의 내용은 쉘마 텍스트를 아침과 저녁에 암송할 것, 암송하는 자세(베라코트 1:3) 및 방법(베라코트 2:3), 기도드리는 장소(베라코트 2:4), 쉘마 성구와 기도문의 의무적 암송, 암송 의무의 면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신실한 유대인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유일성과 통일성을 고백한다. 이러한 하나님 신앙고백의 전후에는 반드시 축복기도가

따른다. 이 모든 것이 유대 전통의 신조(credo)의 구조와 내용이다. ‘유대인들이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이며, 이러한 요소는 어느 곳에서나 나타난다 (Neusner, 1992, 34-35). 쉘마 기도는 모든 기도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루의 시작은 곧 저녁에 드리는 기도로 시작된다. 유대인들은 저녁 기도를 자정까지 반드시 드려야 한다(Berakoht 1:1). 유대인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아침과 저녁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다.

둘째, 기도 교육이다. 탈무드 제라임의 베라코트는 기도문의 암송에 대한 설명으로 아침과 저녁에 암송하며 드려야 할 기도문, 기도문 암송을 위한 올바른 태도,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기도문 내용, 봉헌 기도문 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기도는 좋은 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기도해야 한다. 신명기 쉘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신명기 6:45).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하고’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중언부언 하지 않고, 정해진 기도문을 암송한다. 특이한 것은,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방법에는 여개를 앞뒤로 흔들면서 서서 기도드린다는 점이다.

셋째, 축복기도이다. 축복기도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의 유익에 감사함, 축복들에 대한 암송의 요구(명령)들, 다양한 음식물에 대한 축복을 설명한다. 유대인의 축복기도 중에는 제사장의 축복기도가 있다(민수기 6:24-26).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단순한 창조자가 아니고 의지를 갖고 계신 창조자이시다. 창조의 작업으로 인해 토라, 즉 시내산의 계시가 입증되고 정당화되는 것이다. 토라는 신의 은총과 사랑을 나타낸다(Neusner, 1992, 36). 축복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깊고, 당신의 자비와 부
드러움은 무한합니다.

당신은 우리 조상들에게 생활의 법을 가르치셨으며, 조상들은 당신을 아버지와 임금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들을 봐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법을 배우고 당신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버지시여, 자비로운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이해력을 주소서.

당신의 토라를 공부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교훈을 가르치려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토라를 보는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고, 당신의 계명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소서...

존경과 사랑으로 당신께 매달리도록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소서...

당신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이끄셨으니, 당신을 찬양하며 진실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감사로 당신의 유일하심을 고백하며,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심을 찬양합니다.

넷째, 공동체 식사교육이다. 공동체의 식사규정은 주로 식사에 대한 공동체적 특성을 형성하는 것, 은총을 암송하기 위한 정족수 선언하기(특별한 문제들), 삼마이와 힐렐에 의해서 논의된 식탁에서의 축복 규정에 관한 특별한 문제들(규범적 율법)의 설명이다. 특히 베라코트 6 - 8장에는 식사 기도에 대한 규정들이 있다. 이 세상의 생산물을 취하기 전에 꼭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베라코트 6:1) 기도의 방법은 땅의 과실들에 대해 나무의 과실을 창조해 주신 분은 [복되시다]라고 축복한다. 또한 땅에서 자라지 않는 고기, 물고기, 우유, 치즈, 달걀 등 음식에 대하여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해 주신 분은 복되시다]라고 말해야 한다. 또한 식사를 마치고 드리는 기도가 있

다. 이 기도는 신명기 8:10에 기초하고 있는데, 모두 감사와 찬양이 표현되어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흔히 언급하고 있는 ‘축복’의 개념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비성서적 혹은 기복신앙적인 내용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김재진, 2009, 164-165). 유대교의 탈무드와 기독교의 성서는 단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만족함이나 세속적 성공을 올바른 축복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탈무드의 제라임에 나타나는 쉼마 신앙과 기도, 축복, 공동체 식사교육에는 신학적으로 깊이 성찰해야 할 내용이 들어 있다.

탈무드 제라임 베라코트는 물론 기독교의 성경에서 언급하는 축복을 받는 삶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축복이다(창세기 24:48; 신명기 11:29; 시편 66:8).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실 때 주어지는 육체적, 정신적 복락과 번영을 의미한다(창세기 39:5, 시편 24:5). 그러나 성경은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도 있다(말라기 2:2). 반대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경우도 있다(신명기 23:5, 사사기 17:2, 느헤미야 13:2)(아가페사전, 2000, 1599).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의 축복받는 삶의 기독교교육은 유대인들의 전통은 물론 성경에서 언급하는 쉼마 텍스트의 내용을 재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를 축복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삶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데서 출발한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한 세계 내의 자연 - 인간 - 사물들이 상호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살롬(평화)을 유지하는 상태를 반영한다. 이러한 축복된 삶을 위한 조건으로서 성서적 쉼마 신앙고백은 저녁과 아침에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좋은 일과 나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깊이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약속하신 계시의 말씀을 신뢰하고 증언해야 한다, 그리고 매일의 식사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주재권을

인정하며 공동체적 결속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바르게 배우도록 해야 한다.

2. 사회정의 · 생명 · 창조보전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

21세기 인간의 발전된 기술과학이 가져온 산업체제의 결과물들, 특히 신자유주의 자본과 결합된 기술들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어 인간의 삶의 조건을 위기로 몰아간다(Berry, 2000, 124-125). 이러한 상황은 성서와 기독교적 신앙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복된 세상과 인간의 삶의 질서가 왜곡되고 파괴되어 가는 실정이다. 달리 표현하여 생태신학자 폭스(Matthew Fox)가 언급한 원복(原福, Original Blessing),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주어진 원래의 복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말이다. 이제 우리 시대에 인간의 삶의 처소로서 왜곡되고 파괴된 지구 환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복된 세계 질서를 치유하고, 회복되어 보전되기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탈무드 제라임의 페아(Peah)는 구석진 곳, 밭 모퉁이라는 의미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추수기에 모퉁이에 있는 떨어진 곡식이나 포도밭에 있는 남겨진 포도 역시 거두지 말고 남겨 놓아야 한다. 농작물을 거두어들인 다음에는 떨어진 것을 주워서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 나그네(객),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말하자면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격차에서 오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사회정의 실천을 위한 지혜라 하겠다. 또한 제라임의 킬아임(Kilaim)은 곡식이나 동물의 이종교배 금지를 설명하고 있다.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種) 간에 교미시켜서는 안되며,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도 안 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레위기 19:19; 신명기 22:9-12). 이러한 규정은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종(異種) 간의 혼합 혹은 혼종을 금하는 생활의 윤리적 기준을 선언한 것이다.

탈무드 제라임 페아의 규정들은 오늘날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통찰을 제공해 준다. 첫째는 농업활동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의 실천으로 사회정의의 회복하려는 노력이다. 밭 모퉁이에 수확물 일부를 남김으로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려는 유대인들의 정신을 반영한다. 둘째는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안에서 생태환경의 질서 회복이다. 킨아임의 곡식과 동물의 이종교배 금지, 심지어 서로 다른 두 재료를 혼합하여 만든 옷의 착용도 금지된다. 이러한 이종교배 그리고 무엇인가 두 개 이상의 다른 종류를 섞어 만든 혼종의 결과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며, 인간의 삶을 어지럽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탈무드 제라임의 페아 규정들은 오늘날 기독교회에서 사용하는 구약성서 레위기와 신명기 텍스트의 규정과 동일하다.

특히, 오늘날 한국사회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전자 조작과 변형으로 대량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인류사회의 빈곤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동물을 포함하여 농산물에 대한 유전자 조작과 변형으로 생산된 결과물들은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두 개 이상의 재료를 혼합하여 만든 새로운 종의 형태(이종교배), 혹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콩, 옥수수, 토마토, 면화, 카놀라, 사탕무 등)과 미생물,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생산에 대하여 학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나 미생물이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혹은 자연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이종원, 2014, 243).

실제, 2020년 우리는 전지구적으로 변종 미생물, 즉 인수공통감염병 코로나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의 참혹함을 경험하고 있다(노영상, 2020, 42-43; 이종훈, 2020, 69-71). 이종교배나 한 종(種)의 인위적 변형은 인간 세계의 기존 질서에서 전혀 다른 종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예컨대, 남자 혹은

여자가 의학의 도움으로 성(性) 전환을 한 트랜스 젠더의 출현, 혹은 인간과 기계가 결합하여 등장한 형태의 사이보그, 혹은 트랜스휴먼 등과 같은 기계 인간의 출현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탈무드의 제라임 텍스트의 킬아임과 구약성서 레위기와 신명기 텍스트는 현대 생명공학 윤리의 적절한 기준을 제공한다. 탈무드 제라임 텍스트의 킬아임과 기독교의 구약성서는 혼종교배(이종교배)를 금지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3.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위한 기독교교육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물, 바람, 온도, 공기 등을 인간에게 주셨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통스러운 노예살이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또한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수여하신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하여 주겠지만, 만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다(신명기 28:1-68).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한다(신명기 6:24).

탈무드 제라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제물이 크게 세 가지, 곧 농산물 수확의 십일조, 밀과 보리의 소산물로 만든 빵의 감사예물, 제사장에게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예물이 있다.

첫째, 땅에서 지은 농작물과 관련한 십일조 감사예물이다. 먼저, 탈무드 제라임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쉼마 신앙고백과 땅에서 얻은 먹을 것에 대한 축복과 감사로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얻은 농사 수확물은 그 축복에 대한 감사예물로서 십일조를 드리는데

여기에는 네 종류의 규정, 곧 데마이, 테루모트, 마아세로트, 마아세르 쉘나 등이 있다. ① 데마이는 제사장에게 십일조를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제물에 대한 규정이다. 즉, 이방인의 땅에서 생산된 상업적 농산물은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드릴 수 없다. ② 테루모트는 제사장에게만 사용되는 십일조 감사예물이다. 제사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③ 마아세로트는 회막을 섬기는 레위인의 생활을 위하여 드리는 십일조 감사예물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얻은 소득의 열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레위인(레위 지파)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열두 지파 가운데 땅을 유산으로 분배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④ 마아세르 쉘나는 땅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의 초태생을 감사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오를라이다. 오를라는 가나안 땅(팔레스틴)에 들어가서 각종 과수를 심어서 열매를 얻었다면 삼 년간은 먹지 말아야 한다. 아직은 과수목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넷째 해에는 그 수확물로 여호와께 감사 제물로 드려 찬송하고, 다섯째 해부터는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소산물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나안 땅의 토종 과실들이 부정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반영한다.

셋째, 비쿠림이다. 비쿠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드리는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하는 감사예물이다. 사실 모세가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특별한 세 절기가 있다. 그것은 곧 유월절(Pesach, 무교절), 맥추절(Shavuot, 칠칠절, 오순절), 수장절(Sukkot, 장막절, 초막절)이다(출애굽기 23:14-19, 34:18-26; 신명기 16:1-17). 이 가운데 맥추절과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 얻은 수확물 가운데 첫 열매를 성막(회막)에 가져와 제사장에게 드리는 감사 제물이다. 그런데 이 맥추절과 수장절에 드리는 비쿠림, 즉 첫 열매는 '거둔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한다(출애굽기

23:19). 이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제물은 곧 짓과 꼴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최고의 표현을 의미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판과 비난을 받고 내용은 무엇인가? 종교사회학자 이원규는 한국교회의 쇠퇴 원인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공신력을 잃어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며, 종교적 매력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국교회는 팽창주의, 교파분열, 개교회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어 영성은 부족하고 목회자 자질은 떨어지며, 구제/봉사에 인색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하였다(이원규, 2010, 178-181). 한마디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에 몰두한 결과 공신력과 존경을 잃어버린 것이다.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기독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탈무드 미쉬나 제라임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삶을 숙고해야 한다. 다시 말하여 미쉬나 제라임 규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하여 땅에서 얻어낸 농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곧 네 종류의 십일조, 오틀라, 비쿠림 등에서 보여준 그들의 진지한 종교적 헌신과 실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4. 율법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독교교육

이스라엘 왕국, 곧 초대 사울 - 다윗 - 솔로몬 왕 이후 B.C. 931년에 남쪽에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여 유다왕국이 성립되었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여 이스라엘 왕국이 성립되어 두 나라로 분열되었다. 르호보암왕 이후 약 130년이 지난 후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앗시리아 살만에셀의 침공으로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어 멸망당하였다(열왕기하 18:9-12)(Bright,

1981, 376). 그 이유에 대하여 열왕기하 저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종 모세의 명령한 것(토라)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열왕기하 18:12).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135년 동안 유지되었던 남쪽 유다왕국은 B.C. 586년 바벨로니아 느브갓네살의 침공으로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 당하였다. 유다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함과 동시에 수도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은 모두 훼파되었다(열왕기하 25:1-21; 역대하 36:13-21; 예레미야 52:3-11). 이에 대하여 역대하 기자는 시드기야 왕이 그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겸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모든 제사장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함께 이방신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와의 진노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임하였다고 기록하였다(역대하 36:11-21). 유다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생활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기간이 70년이였다(역대하 36:21; 예레미야 25:11, 29:10).

바벨론 포로기 전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과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촉구한 예언자들이 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활약한 예언자는 호세아, 이사야, 미가 예언자이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에 처할 즈음에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등이다. 구약학자 앤더슨(B. W. Anderson)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를 '8세기 예언자'라고 불렀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B.C. 721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사마리아에서 활동하였고, 이사야와 미가는 그보다 후인 B.C. 700년 이전에 남유다에서 예언활동을 하였다(Anderson, 1984, 17). 이들 예언자 가운데 특히 주목할만한 예언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다.

먼저, 예언자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

로기 전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특히 이사야서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 제1 이사야(이사야 1-39장, 예루살렘 이사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여러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 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였다. 그 이유는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성전제사가 아니라 그 땅에 사회정의를 심고 가꾸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이사야 5:1-7)(민복기, 2014, 228-231). 요컨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성전제사보다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하여 계시하신 사회적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예언자 예레미야이다. 예레미야는 남유대 예루살렘이 멸망할 무렵 활동하였는데, 무엇보다 모세와 시나산 전통을 따르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은 십계명(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대한 철저한 불순종을 지적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한다(하시용, 2014, 253). 우상숭배와 같은 가장한 행위를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라고 강조하였다(예레미야 29:10-13).

바벨론 포로기에 고난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유대인)에게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이 전하는 주요 메시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고난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토라)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토라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고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토라를 잘 듣고, 배우고, 지키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강조한다.

남유다가 패망하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 가야했다. 이러한 시기에 유대인들은 무너진 성전 대신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표현을 성전 대신에 회당으로 전환되었다. 제사는 예배로, 토라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그 신학적 의미는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신학적 응답,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의 삶의 방향과 적용 등을 위하여 탈무드, 즉 미쉬나, 게마라가 등장한 것이다.

탈무드 제라임의 내용은 베라코트(쉐마 신조, 기도문), 페아(사회적 약자 보호), 농사에 대한 감사 제물(십일조), 떡반죽 그릇(할라), 오를라(과수 열매), 첫 열매(비쿠립) 등이다. 이러한 제라임 미쉬나들은 애초 모세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율법들(출애굽기 20-40장), 그리고 신명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강조하는 십계명과 율법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계명들(신명기 4-26장)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석한 내용이다. 농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제라임의 핵심적 지향은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조차 네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이다(신명기 6:1-9).

오늘날 기독교는 토라, 혹은 구약성경을 신약성경과 대비하여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 속에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외식적 규칙으로 생각하여 율법을 배격한다. 물론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의무론적, 외식적 삶은 잘못된 일이다(마태복음 23장). 그러나 구약성서와 토라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세우신 길(道)라는 측면에서 기도하며 그 뜻을 새기면 복음을 완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왕대일, 2014, 11-12). 예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마태복음 5:17).

5. 통전적 영성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

유대인들은 토라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 받은 백성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며, 그들의 자손에게도 전승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로 규정되었다. 토라(Torah)는 흔히 ‘율법’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교화’(教化), ‘지시’(指示)의 뜻을 담고 있다. 즉 토라는 인간이 배워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과 삶의 방향을 뜻한다. 탈무드(Talmud)라는 말에는 ‘배운다’라는 뜻이 담겨있고, 미쉬나(Mishina)라는 말은 ‘반복하여 외워서 배운다’는 뜻이 담겨있다(옥장흙, 2014, 30).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신앙은 물론 일상에서도 생활이 다르며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기억해야 한다. 유대인들에게 토라가 삶의 절대적 기준이고, 환경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며 살아가야 한다(옥장흙, 2014, 17; Levi, 1990, 170). 유대인들에게 탈무드는 그 내용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배우고 연구하여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르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요구된다(신명기 6:4-9; 20-25).

탈무드 베라코트 및 농사 관련 제라임 10개의 미쉬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 땅(자연) - 사람이 어떻게 조화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감사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베라코트). 하늘의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고, 땅에서 인간은 수확한 농산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수확할 때에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한다(폐아). 땅의 소산물을 얻을 때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 셋째, 자신이 수확한 농산물 옆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물로 드리며(마아쉐르 쉘니),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예물로 드린다(비쿠림). 이스라엘은 농사를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삶의 주권자임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헌신해야 한다. 넷째,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땅에서 농사하는 사람은 씨앗이나 동물들을 혼종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옷감도 상호 섞어 직조한 것을 만들어 입어서는 안 된다(킬아임). 즉, 종자(種子)나 종(種)이 다른 것을 섞어 혼잡하게 하는 혼잡이나 혼종을 금지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즉 자연환경을 왜곡하거

나 변질되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한다.

유대교 탈무드 제라임의 10개 미쉬나는 기독교의 구약성서 신명기 6장,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19장 내용과 공통되는 가르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다. 사실, 구약성서 구성의 중심축인 구속사의 의미와 해석, 실천의 차이로 인하여 기독교와 유대교는 그 길을 달리하였다(김이곤, 2007, 34).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삶, 신앙과 생활,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세상의 비난과 비판을 받는 현실(강희천, 1999, 211; 이규민, 2016, 329-332)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서(토라)를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전적 영성생활은 다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V. 나가는 말

유대인들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였으며,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일상적인 삶에서 토라(율법)를 지켰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비난을 받으며, 위기에 빠져가는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대안이 유대교에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힘의 근원을 유대교의 경전인 탈무드에서 찾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탈무드의 출현 배경, 탈무드 제라임의 주요 내용, 탈무드 제라임의 기독교교육에 적용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탈무드의 첫 번째 책인 제라임(Zeraim, 농사)을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교육의 적용 가능성을 다섯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축복받는 삶을 위한 기독교교육이다. 둘째, 사회정의·생명·창조보전을 추

구하는 기독교교육이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위한 기독교 교육이다. 넷째, 율법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독교교육이다. 다섯째, 통전적 영성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이다.

수천 년 동안 고난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토라)과 탈무드를 중심으로 통전적 영성을 회복한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에서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제 한국교회는 그동안 잘못했던 실수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사회적인 비판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희천 (2003).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권성달 (2019). 미쉬나 제1권: '제라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독교사상**, 772, 99-113.
- 김이곤 (2007).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약 이해. **구약논단**, 13(2), 33-51.
- 김정준 (2019). 제4차 산업혁명시대 기독교교육의 인간상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59, 130-134.
- 김재진 (2009). 儒佛仙 祈福信仰에 기초한 除災招福의 “福 神學”: 청과 김광식 교수님의 ‘福의 神學’과의 대화. **문화와 신학**, 5(14), 159-190.
- 노영상 (2020). 인수공통감염병 창궐과 동물보호. 안명준 외 17명.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서울: 다함.
- 민복기 (2014). 이사야, 주바라기 예언자. 김덕중, 안근조, 이사야 엮음. **구약성서의 경건, 구약성경의 영성**. 서울: KMC.
- 성경사전편찬위원회 (2000). **아가페성경사전**. 서울: 아가페서원.
- 손원영 (2002). **기독교교육의 재개념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윤응진 (2000). **비판적 기독교교육론**. 서울: 다신글방.
- 옥장흠 (2014). **탈무드를 보다: 21세기 교육의 대안**.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 옥장흠 (2011). 유대교의 탈무드를 통한 통전적 교육. **기독교교육논총**, 26, 93-128.
- 왕대일 (2014). 머리말. 김덕중, 안근조, 이사야 엮음. **구약성서의 경건, 구약성경의 영성**. 서울: KMC.
- 이규민 (2016). **포스트모던 시대의 통전적 기독교교육**. 서울: 한국장로회출판사.
- 이원규 (2010). **한국교회의 위기와 전망**. 서울: KMC.
- 이종원 (2014). GMO의 윤리적 문제. **철학탐구**, 36, 243-272.
- 이종훈 (2020). 100년만의 팬데믹 그리고 인수공통감염병. 김정준 편. **코로나19를 넘어서는 기독교교육**. 서울: 동연.
- 정연호 (2010). **유대교의 역사적 과정**.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 최인식 (2008). **예수와 함께 걷는 유대교 산책**. 부천: 도서출판 예루살렘.
- 최중화 (2019). 미쉬나: 오해와 편견을 넘어. **기독교사상**, 721, 126-139.
- 최창모 (2007). **이스라엘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하시용 (2014). 예레미야, 야훼의 마음을 설교하다. 김덕중, 안근조, 이사야 역음. **구약성서의 경건, 구약성경의 영성**. 서울: KMC.
- Anderson, B. W. (1970).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 김찬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1966년 출판)
- Anderson, B.W. (1984). **8세기 예언자**. 엄현섭 역. 서울: 컨콜디아사. (원저 1978년 출판)
- Berry, T. (2000). 경제에 대한 종교적 접근. 김준우 역. **생태계의 위기와 기독교의 대응**.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원저 1995년 출판)
- Bright, J. (1981). **이스라엘의 역사**.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 스트. (원저 1981년 출판)
- Cohen, D. A. (1994). **토라탈무드**. 원용순 외 역. 서울: 한글.(원저 1948년 출판)
- Ellul, J. (2012). **뒤틀려진 기독교**. 박동열, 이상민 역. 대전: 대장간. (원저 1984년 출판)
- Encyclopedia Judaica* (1972). Vol. 7. Jerusalem: Keter.
- Levi, R. N. (1990). *Torah study*. New York: Philipp Feldheim.
- Musaph-Andriessse, R. C. (1981). *From torah to kabbalah*, London: SCM PRESS.
- Neusner, J. (1973). *Learn mishnah*. New Jersey: Behraman House.
- Neusner, J. (1992). **토라의길: 유대교입문**. 서휘석·이찬수 역. 서울: 민족사. (원저 1984년 출판)
- Neusner, J. (2006). *“Introduction to tractate berakhot”*, The babylonian talmud: A translation and commentar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 Nietzsche, F. (1985).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경석 역. 서울: 삼성출판.
(원저 1887년 출판)

Johnson, P. (2005). **유대인의 역사1**. 김한성 역. 경기: 살림. (원저 1998년 출판)

Strack, H. L. (1978). *Introduction to the talmud and midrash*, New York: Atheneum.

Unterman, I. (1971). *The talmud*, NY: Bloch Publishing Company.

Abstract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hristian Education by Zeraim, Jewish Talmud

Jang-Heum Ok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In the 21st century, Our Korean churches should be reborn and truly restored in the situation Korean churches have been criticized socially and adversely affected Christian missions. In this situation, the researcher analyzed the Zeraim(Agriculture) of the Jewish scripture Talmud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the problems of the Korean church.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Talmud, the main contents of Talmud Zeraim, and the application of Talmud Zeraim's Christian education were divided and analyzed. Through the Jewish Talmud Zeraim, five possibilities of application were suggested to solve the problems of Korean churches. First, it is a Christian education for a blessed life. Second, it is a Christian education that pursues social justice, life, and integrity of creation. Third, it is Christian education for a life that appreciates God's grace. Fourth, it is a Christian education for realizing the commandments and practicing the teachings. Fifth, it is a Christian education that pursues conventional spirituality. Researchers believe that the mission and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without losing their identity and faith under the numerous hardships in history should be found in the faith and life of Jews who have regained their traditional spirituality centered on the law (Torah) and Talmud which are the God's words. From now on, the Korean church should boldly clear up its mistakes and move on to education that humbly accepts the sounds of social criticism and can make a fresh recovery.

《 **Keywords** 》

Jewish, Torah, Talmud, Zeraim, Berakhot, Holistic spirituality

- 투고접수일 : 2020년 11월 30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12월 26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26일